

“곡 쓰면서 느낀 행복감, 많은 이들에게 전하지길”

‘제54회 서울음악제’ 우수상 수상 전남대 의대 교수들

악리학교실 국현 교수 ‘굴비 굴비’ 작곡하고 조정관 교수 작사 국 교수, 350여곡 작곡·음반 17장·악보집 14권 ‘글로벌 작곡가’

전남대학교 병원의 한 의료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음악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다.

전남대의대 악리학교실의 국현 <사진>교수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54회 서울음악제에서 독창 부문 우수상을 받은 것.

서울음악제는 196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창작음악 축제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음악제다. 작곡가 나윤영, 조두남, 김동진, 김성태, 나인용 등이 거쳐갔으며 신인 작곡가 발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 교수는 이번 음악제에서 ‘굴비 굴비’를 노래했다. 곡은 지난해 발매한 ‘고향’에 수록됐으며 전남대병원 심장내과 조정관 교수의 작사가 가미됐다. 곡은 굴비를 뒤집은 ‘비굴’의 의미를 담아 영광군 특산물인 굴비를 소재로 굴비의 입장에서 왕에게 전

사되는 과정 등을 묘사하며 재물과 권력에 비굴해지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 교수의 음악 인생은 2004년, 다니던 광주 서석교회 찬양팀에서 비롯됐다. 서석교회를 다니던 국 교수는 찬양팀을 위한 곡을 만들게 됐고 이후 작곡에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그간 국 교수가 작곡한 노래는 약 350여곡, 발매된 것만 음반 17장과 악보집 14권에 달한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50여곡을 발표한 글로벌 작곡가다.

국 교수의 손을 거친 노래들은 국내 다수의 시립합창단과 전문합창단이 연주했으며 미국,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도 다채롭게 연주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합창단 제 18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국 교수의 ‘고향’이 연주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나주시립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회에서도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국 교수는 본업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음악을 통해 큰 힘을 얻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퍼즐을 풀듯 몰입해서 단시간에 곡을 써 내려갑니다. 쓰는 과정에서의 기쁨과 완성되었을 때의 행복감을 곡을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작곡이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통해 위안도 얻고 성취감도 얻고 있죠.”

국 교수는 현재 소프라노를 위한 독창 예술가곡



제 54회 서울음악제에서 국현 교수의 곡을 노래한 바리톤 박흥우(오른쪽) 교수와 연주를 맡은 피아노 배은아 교수.

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중에는 해외 합창단을 섭외해 합창곡도 녹음할 계획이다.

“비전문 음악가, 작곡가로서 사회적 후학 양성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곡을 쓰면서 느꼈던 행복감을 듣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제 음악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달뜨기	17:01
해질	18:09	달지기	03:15

건강관리 철저

평년보다 기온 낮겠다.

광주	흐린구름	14/20	보성	흐린구름	13/20
목포	흐린구름	15/19	순천	흐린구름	15/21
여수	흐린구름	16/21	영광	흐린구름	14/18
나주	흐린구름	13/20	진도	구름많음	15/19
완도	흐린구름	15/21	전주	흐림	13/20
구례	흐린구름	13/20	군산	구름많음	13/19
강진	흐린구름	14/21	남원	흐림	12/20
해남	흐린구름	14/20	흑산도	맑음	14/17
장성	흐린구름	13/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1.0~2.5	1.0~2.5	1.0~2.5	1.0~2.5
	면바다(북)	2.0~4.0	2.0~4.0	2.0~4.0	2.0~4.0
	면바다(남)	2.0~4.0	2.0~4.0	2.0~4.0	2.0~4.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0	0.5~1.0	0.5~1.0
	면바다(서)	1.5~2.5	1.5~3.0	1.5~2.5	1.5~3.0
	면바다(동)	1.0~2.0	1.5~2.5	1.0~2.0	1.5~2.5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5:35	00:00
여수	17:38	12:14	
	01:17	07:15	
	13:14	19:49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낮음	좋음

◇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22	13/20	13/17
11(화)	12(수)	13(목)
12/20	9/22	11/23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장애인복지관서 나눔행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최근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제18회 나눔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행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과 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열렸다. 행사에는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과 박해숙 유족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광산구장애인 복지관에 겨울나기 이불, 생필품과 유족회 취약계층에 이불 220개를 전달했다

박해숙 유족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의 정신을 통해 5·18 대동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장애인재활시설에 후원금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은 최근 광주 각화동 소재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시설 '즐거움집'을 방문해 후원금 120만 원을 전달했다.



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거점공유스튜디오 개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강구홍)는 지난 5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거점공유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조재희 이사장, 한국폴리텍V대학 강구홍 학장, 전북·전남·익산·순천캠퍼스 학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공유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소개 영상 시청, 이사장 축사, 학장 인사말, 공유스튜디오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거점공유 스튜디오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기반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을 확대하고

기술교육 고도화를 위해 구축됐으며 메인스튜디오, 1인 스튜디오, 편집실, 오픈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메인스튜디오는 전체 스튜디오의 중앙컨트롤이 가능하며 대형 크로마키 스크린과 인터뷰 존이 있어 인터뷰, 온라인 강의 제작 등이 용이하다. 1인 스튜디오는 개인 콘텐츠 제작과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비가 구축돼 있으며 편집실은 편집 및 아이디어 토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거점공유스튜디오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원하는 광주 시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인사

- ◆조선대
 - ◇보직승진
 - ▲총무관리처장 김관수 ▲취업지원부처장 (겸 대학원자립플러스센터 부센터장) 김양희 ▲총무관리부처장 강진희
 - ◇보직부여
- ▲사업지원팀장 김주하 ▲학술정보지원팀장 문영란 ▲생활관운영팀장 박영태 ▲일자리지원팀장 정유신
- ◆한국농어촌공사
 - ◇상임이사
 - ▲부사장 겸 농지관리이사 강경학 ▲기획관리이사 이순재 ▲기반조성이사 박태선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음 9월 12일 癸巳)

☎ 010-9790-8237

화축

▲김재오·전선옥씨 아들 김형석군, 이석춘(광산경찰서 도산파출소 팀장)·박재심씨 딸 이수민양=8일 오전 11시 50분 광주 JS웨딩홀 3층 그레이스홀

▲임길락(전 조선태권원 총무부장)·소경란씨 아들 임동신군, 유지연씨 딸 서수민양=15일 오전 11시 광주 위더스웨딩홀 5층 엘린홀

▲서팔만·김미옥씨 아들 서재명군, 나금석(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김명희씨 딸 나혜윤양=15일 오후 12시 40분 광주 라파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

▲정광익(목포재활요양병원장)·오소저씨 아들 정희철군, 성기훈·이순애씨 딸 성예지양=15일 광주 하우스 오브 드레드 3층 아벨린홀

알림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子



巳



午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6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48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60년생 대체로 해소되지만 부분적인 결핍은 여전히 있다. 72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곳에서 발생하여 황당할 것이다. 84년생 다들 다다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96년생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6, 97

37년생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겠다. 49년생 단순한 착각은 여러 가지 망상을 부르게 되는 법이다. 61년생 가타이 잡히는 시점이다. 73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볼 만한 게임이다. 85년생 지연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97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50

38년생 단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해야겠다. 50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탄력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리라. 62년생 익히 잘 아는 바라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74년생 생 계승될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일 뿐이다. 86년생 남의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98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행운의 숫자 : 45, 55

39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하고있으면 성과를 거두리라. 51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63년생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에 걸려드느니라. 75년생 침착하게 행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리라. 87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 99년생 구유일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8, 56

40년생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52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64년생 목적이식이 분명해야 차질이 없는 법이다. 76년생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높은 산을 오르는 이가 보인다. 88년생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00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0, 84

41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53년생 기본에 충실해야만 막쳐오는 현안에 대비할 수다. 65년생 여건을 발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77년생 경직된 사고는 자기 한계가 될 수도 있다. 8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진다. 01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36, 54

42년생 종합적으로 살펴봐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54년생 흥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길성이 비추어오고 있다. 66년생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78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90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02년생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02, 76

43년생 냉철한 이성에서 비롯된 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들리라. 55년생 열 길 불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67년생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79년생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 91년생 징후가 이상하니 현상을 유지하라. 03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21, 65

44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56년생 현하에 충실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68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0년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별할 일이다. 92년생 부주의하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04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94

33년생 현태가 매우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45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니라. 57년생 액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69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다채로운 기회를 접하게 된다. 81년생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93년생 착수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행운의 숫자 : 47, 69

34년생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46년생 운용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58년생 변화의 폭이 크니 참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70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라. 82년생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94년생 합세해야 물리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92

35년생 지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47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59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71년생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코다칠 수 있다. 83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 95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2, 99